

영화 <사도> 관객의 ‘자아’ Movie <Sado> Audience’s Ego

김길훈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프랑스학과

Guyl-Hun Kim(ghk@jbnu.ac.kr)

요약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가정사에 공감하는 관객의 감수성, 사회적 기표에 대한 관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관객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보며 아버지와 아들의 상이한 정서적 감정, 전통의 이상과 가치의 상징인 아버지의 주체와 이를 파괴하려는 저항적 주체간의 상반된 의식이 마음속에서 충돌할 때 본래적 ‘나’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적 사회적 행동으로서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무의식적 위선 혹은 의식화된 감정을 따를 것인지 고민한다. 관객은 전통적 사회의 상징인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을 지향하면서도 사도세자의 비극을 보며 ‘나’의 존재론적 철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양가적 태도, 도덕적 가치관을 내 보인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기표와 그에 대한 ‘나’의 저항 그리고 ‘나’의 광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도덕의 가치와 기준에 관한 관객의 사유를 살펴보고, 또한 과거의 도덕은 항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현재 역시 미래에 의해 전복될지도 모르는 도덕의 가치에 안위하고 있기에 관객이 최상의 것이기를 원하고 믿었던 도덕, 질서, 법의 체계는 언제나 미완성이고 변화무쌍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관객의 자아 | 아버지 | 사회적 기표 | 저항 | 광기 | 도덕의 가치 |

Abstract

The movie <Sado> offers a chance to observe the social signifier and the sensitivity of audiences who feel sympathy with the tragic history of crown prince Sado. While watching the movie, the audience halts between ideas whether to go back to "primary ego", or to play the unconscious hypocrisy or the ingrained social behavior which is to resolve the internal conflicts while they face two contrary opinions; one is the obedient subject to obey fatherhood, as a symbol of historic value and convention in a society, and the other is the resistant body to break the bond of convention. The audience may feel some ambivalent feelings of the moral values between the paternal authority and the existential philosophical value of 'self'. This study will observe the audience's response of Sado toward the moral norms of the society when they face the signifier of father in the movie with experience the conflict between their resistant ego and madness. Also the study will discuss that the social landscape such as norms, order, and legal system is ever-changing and open to be subverted by the future even though audience hope that the present moral value with which we are content ever-last.

■ keyword : | Audience's Ego | Fatherhood | Social Signifier | Resistant | Madness | Moral Value |

*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 2016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8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0월 04일

수정일자 : 2016년 10월 04일

교신저자 : 김길훈, e-mail : ghk@jbnu.ac.kr

I. 서론

영화 <사도>의 관객은 18세기 프랑스 멜로드라마에 열광하던 관객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프랑스 드라마(drame)와 더불어 등장하는 감수성(Sensibilité)의 개념은 17세기 비극과 소극에 심취한 관객들의 통례적 감정에 지적 태도가 결들여진 의식화된 감정적 관념을 일컫는다. 비극의 관객은 고대 영웅들의 심리적 갈등구조에 박수를 보냈고, 소극의 관객은 비극의 비장(悲壯)함의 격식 파괴에 웃음을 터트렸으며, 몰리에르는 이러한 귀족의 고상한 취향과 서민의 경박한 감정의 간극을 좁혔고, 디드로(Diderot)는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생아와 친부의 만남, 가난한 처녀와 부자와의 연애, 난봉꾼의 질투 등과 같은 사회의 도덕적 정서를 멜로드라마로 공문화 하며 도덕(사회적 기표)을 성찰하였다. 특히 멜로드라마에 심취한 대중의 감수성에는 이전의 전통적 정서에 반하는, 신의 은총과 사랑이 아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내재화한다. 산업화 이후 대중은 교육과 문화적 연대를 통해 때로는 전통에 동조하고 때로는 이에 저항하며 신, 아버지, 자본, 등의 사회적 기표의 상징들을 정신세계와 사회체계의 구성요소로 수용하고 있다. 바꿔 말해 의식화된 감정으로 도덕의 가치가 결정된다.

역사(Histoire)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성의 합성물이고 이야기(histoires)는 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감성의 결과물이다. 영화 <사도>는 역사적 사실과 감독의 상상력이 빚어낸 픽션(Fiction과 Fact의 결속어)으로서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사도세자의 비극적 가정사에 공감하는 관객의 감수성, 사회적 기표에 대한 관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관객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영화적 서술과 부합하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를 평가하는데, 이때 자신의 영화 관람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대부분 의식화된 정서로 감별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적 가정사에 초점을 두었다는 감독(이준익)의 말처럼 역사의 진위(眞僞)에서 물러나 사도세자의 비극을 마주한 관객의 감수성, 즉 의식화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는 라캉의 '주체'의 정의

에 사용된 인성구조와 언어구조의 대비를 참고하여 <사도> 관객(주체)의 인성과 영화적 서사(글쓰기)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객의 의식화된 감정, 사회적 기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관객은 조선 역사에 대한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자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보며 사회적 기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상이한 정서적 감정, 두 주체간의 상반된 의식이 마음속에서 충돌할 때 본래적 '나'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적 사회적 행동으로서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무의식적 위선 혹은 의식화된 감정을 따를 것인지 고민한다. 본 연구는 관객의 이러한 심적 카르텔, 아버지의 자아, 나의 자아, 그리고 광기의 자아를 추적하며 사회적 가치와 이상(도덕)의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아버지의 자아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종교(신)가 자연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심적 방어기제라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아버지는 관계론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심적 방어기제이다. 최초 종교의 제단은 자연재해와 맞서기 위해 세워졌고, 중세의 신은 마녀, 악마와 결투했으며, 아버지는 사회적 존재론적 위험(생물학적이든 심리적이든 간에)에 맞서 선봉에서 있다. 따라서 정신적 신과 아버지는 무형의 존재이고, 바꿔 말해 부재한 것의 대체이며 부재한 곳에 존재함으로써 '나'의 온전함을 완성하는 상징이다. 내세의 구원을 위해 신에 대한 복종과 숭배의 의무가 뒤따르듯 아버지(세속 권력)도 '나'의 보호와 안전을 담보로 체제유지의 규범과 질서의 준수를 심지어 숭배를 명한다. 전체적, 독재적, 민주적 그리고 종교적 형태의 모든 권력은 부재한 신과 아버지를 법적체계 속에 녹여내며 표면적으로 정의사회를 내면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구조의 사회를 정당화 한다.

영화 <사도>에서 부재한 곳에 있어야 하고 부재한 것을 대체해야 하는 아버지(도덕)의 모습은 무엇인가? 영조(송강호)는 사도세자(유아인)의 지난 밤 패륜적 범

죄를 친국하기 앞서 아버지 숙종의 어진 앞에서 종묘사직을 지켜나가지 못함을 자책한다. 아들 사도세자가 조선 이씨 왕조의 영원함을 위기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니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전할 수 있다>. 왕의 세자 살해가 종묘를 위해 정당화 된다. 아버지의 아들 살해는 가톨릭의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죽음이 대표적이다. 이와 반대로 바빌로니아 신화는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살해함으로써 아버지의 신성하고 강력한 힘을 아들이 물려[1]” 받는다. 상반된 위 이야기들은 ‘부활’이라는 정신적 장치를 통해 아버지의 성스러움과 강인함이 아들에게 재현되는 것을 암시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존속과 존비) 살해가 가부장적 질서나 체계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남성적 질서의 굳건함과 영속성의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스런 목적외에 가장인 아버지 또는 대를 잇는 남편을 살해한 자는 가부장적 법제도에 의해 혹독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왕조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행사하였다[2]1. 영조(송강호)에게 종묘사직이 가부장 질서와 체계의 성스러움이기에 사도세자(유아인)의 역적행위는 제재대상이다. 체제공이 <소신은 나라의 녹봉을 먹는 신하이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명분을 주소서....>, 사도세자가 <조선의 국법에 자결이라는 형벌도 있습니까? 제게 죄가 있다면 임금부에 넘기십시오> 영조는 당황한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으로서 황제의 허가도 없이 왕권을 계승할 자산, 세자와 세손을 처분하는 것은 황제의 제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힘에의 도전이기 때문이다. 황제, 왕, 세자로 이어지는 힘에의 질서체계가 이미 존재한다. 체제공에 이어 도승지마저 역모를 꾀한 죄목으로 세자를 평민으로 하는 교지작성에 반대하자 이번에는 <이 일은 국사가 아니라 가정사이기에 궁궐 담장을 넘을 수 없는 내 집안의 문제>라며 집안(힘에의 질서체계)의 가장으로서 영조가 폐세자반교를 직접 쓴다. 위계의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무리, 집단, 사회는 힘을 좀더 갖고 증식시키는 것이 최대관건이다. 자연계의 생명

체가 주변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결여된 것을 채우려는 생존의 의지를 보이듯이 존재론적 인간의 사회도 영속성을 위해 다양한 의지들이 작동하고, 그 중 “힘에의 의지[3]”가 돋우어진다. 영조의 힘에의 의지표명은 영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아버지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신하들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하자, 영조는 <너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의 운명을 모르느냐? 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왕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한다. 출생 콤플렉스로 인한 힘에의 의지가 엿 보인다. 인원황후가 후궁 문소원의 종아리를 장죽의 담뱃대로 때리자 화경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난 영조가 <대비께서 이리시면 저는 더 이상 임금노릇 못합니다. 뭐요? 저 천한 것 뱃속에 주상의 씨가 들었다 하여 지금 역성드느 거요? 천해요? 그럼 천한 저를 임금으로 만든 분이 대비시니 이참에 제 임금 자리를 거두십시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힘에의 의지는 학문과 예법의 중시로 나타난다. <임금이 공부가 모자라고 대님 하나만 빼떡해도 멸시하는 것이 신하다. 이 나라는 공부가 국시고 예법이 국시야>, 세손(이효제)에게 이르기를 <왕이라고 늘 칼자루 쥐는 것도 아니고, 신하라고 늘 칼끝 쥐는 것도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실력 모자라면 왕이라도 칼끝 쥘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영조는 학식이 있는 신하들과 강론하는 경연(經筵)을 가장 많이 한 왕이며, 후세 왕들을 위해 왕세자가 걸어야 길을 정훈(政訓), 대훈(大訓), 어제자성편(御製自省篇), 어제고금연대구감(御製古今年代龜鑑), 등등을 저술하였다. 영조(송강호)는 왕가에서 <자식을 원수처럼 여기고 기르는> 까닭은 역대 왕들의 피울음소리(종묘신실)에서 알 수 있듯이 힘에의 의지에 대한 도전과 응징이 처절하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세자(유아인)가 혹독하게 제왕교육을 수행해주시기를 원했다. 만일 세자가 제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선왕들이 때로는 부인에게 사약을 내리고 때로는 형제와 조카를 죽이며 힘에의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자신도 선왕들처럼 세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영화는 엔딩 크레딧의 자막으로 정조 이후의 왕권에 대한 도전과 응징의 역사, 힘에의 의지의 결과를 분명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1 실제 서구 프랑크 왕, 클로비스는 비둘기가 천상에서 가져온 성유로 대관식을 치르며 왕권은 신권을 위임받은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

비록 정쟁의 음모이지만 영조는 가부장적 질서체계에 대한 도전의 대가로 세자를 뒤주에 가둔다. 세자가 제왕교육을 부실이 한데다, <세자가 비구니와 기생을 궁으로 들여 음란과 쾌락을 일삼고, 내관과 나인을 수 없이 죽였으며 후원에 토굴을 파 무기를 숨겨놓고 임금을 죽이려 작당했다>는 나경언의 고변서로 그는 <존재 자체가 역모이고, 백정>이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대리청정 중 병권, 인사권, 상소문의 미흡한 처분 때문에 <숙종대왕 붕에 참배할 자격이 없다. 궁으로 돌아가라...>, 종묘사직의 계승자 지위가 박탈된다. 일련의 내

- 외적 억압과 금지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이어진다. 그리고 울화를 이기지 못한 세자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역모인 것을 보여주고자 무덤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경희궁 왕의 침소로 향한다. 체제공, 도승지, 인원황후, 영빈의 간청과 심지어 세손의 울부짖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영조는 뒤주에 봉분처럼 뿔장을 쌓아 세자를 가둔다. 이 비극적 장면이 때문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에의 의지에 도전한 대가이다. 영화는 산자와 죽은 자의 명확한 경계를 연상시키는 무덤(뒤주)의 이미지로 권력은 나눌 수 없음을 관객과 소통한다. 정신분석학에서 가부장적 질서와 제도에서의 남성의 위상은 역사적 산물이고, 이를 무의식의 유산으로 상속한 것이 아버지의 기표이다. 라캉의 “아버지의 기표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에 나타난 언어의 기본적 구조, 기표와 기의처럼 사회의 기본적 텍스트(연결장치)를 상징화한 단어이다[4]”. 아버지의 부재가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논지를 견지하면서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Name-of-the-Father)[5]이 가톨릭의 하느님 아버지가 무형적 존재, 다시 말해 부재한 기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의 법, 질서, 금기, 규제로서 작동 하듯이 나의 욕망의 범주를 결정하고 이를 어길시 거세의 징벌로(법으로) 나를 위협하는 기능을 하고, 그로 인해 일차원적 ‘나’가 풍요롭고 유의미한 다차원적(사회적) ‘나’로 존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 속에서 무형적 존재와 같은 ‘아버지의 이름’(부재한 기표)의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있다. 정조(소지섭)가 할아버지(영조)와의 의리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역모의 죄인으로 공

표한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불령한 무리가 나의 애통을 빙자하여 내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고자 한다면, 내 그들을 마땅히 역물로 다스릴 것이다>. 비록 역모를 피한 자가 친부일지라도 왕(힘에의)에 대한 도전은 종묘사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체제공과 유생들이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고 왕으로 추존하는 것이 아들 된 자의 도리, 제 1의 의리라 읊소하지만 정조는 무형적 존재, 아버지의 기표(체제질서)를 택한다. 관객은 영조의 반인륜적인 준비속살해가 마땅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기표가 사라짐으로써 초래될 무질서의 공포, 불안, 두려움이 심적으로 더 부담스럽다. 국사의 왕을 시해하는 것은 역모이고 가정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패륜으로서 기의적 측면에서 그 무게가 다르지만, 기표적 차원에서 왕과 아버지는 동일한 위상으로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무질서, 혼돈, 그리고 도덕률의 부재이다. 그러므로 관객은 영조의 친국장면이 가혹하기 보다는 힘에의 도전(질서체계)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보고, 힘의 투쟁에서 패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보다는 승자의 기쁨과 쾌감에 더 친숙하다. 다시 말해 관객은 아버지의 자아에 동조한다.

III. 나의 자아

<사도>는 종묘사직이라는 상징적 아버지의 기표에 맞서다 죽어간 사도세자의 비극적 멜로드라마이다. 이 장에서는 왕의 살해시도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오이디푸스 신화적 관점이 아닌 가부장적 질서와 체계, 제왕교육, 아버지의 억압과 금지에 대한 사도세자의 저항적 관점을 보자.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구철학, 도덕적 주체(인간)의 전면에 이성이 있고 이성의 최고 기준으로 자아(인식-의식)가 존재한다는 서구의 전통적 인간관 • 도덕관을 원칙적으로 계승한다. 그들은 마음의 체(體)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자아(moi)가 불안정한 이드(id)와 분열적인 초자아(surmoi)와의 힘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통합된 자아로

우뚝 선 (올바른)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프로이트는 지금까지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마음의 입체 지형도를 완성하여 인성발달과정을 시각화하고, 라캉은 정신의 과정(의식과 인식)에서 서로 공존하고 싸우는 역동적 힘(이드, 자아, 초자아)들을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에 각각 위치시키며 마음의 상호작용을 언어 과학으로 기술한다. 두 정신분석학자의 관점에서 세자의 저항은 자아형성과정, 즉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벗어지는 심적 긴장과 그 해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 두려움, 공포의 산물이다.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의 신체적 긴장은 원시적 자동반사 기제(재채기, 기침, 눈물, 등)에 의해 완화될 수 있지만 심리적 긴장(불안, 공포, 두려움)은 외부 개입(보호자)으로 완전은 아닐지라도 일부분 해소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억압과 금지, 또는 관습, 문화, 전통, 교육과 같은 “상징적 폭력[6]”의 장치들이 감각과 신경계의 긴장과 해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해함으로써 심적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생성되고 이는 정서적 불쾌감, 관계에서의 갈등, 타자에 대한 반항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다. 심리학 연구는 보호자의 개입(억압과 금지)의 정도에 따라 아이가 개방적 자아 형성을 하거나 폐쇄적 자아(혹은 퇴행적 자아),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의 절충에 실패해 뒷걸음질하는 원시적 자아의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퇴행적 자아로의 귀환은 심적 장치의 역동적 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딪힌 결과이다. 다음 장에서 사도세자의 퇴행적 자아의 현상들을 다루자.

세자가 속한 “무리와 집단은 조직의 효용성을 위해 질서체계(규정, 규범, 도덕, 법) - 표면적으로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계약론적 개념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지배-피지배와 같은 종속체계 - 를 택하고, 이러한 체제와 문화를 공고히 하고자 상징적 폭력[7]”(가정, 학교, 전통, 사회), 교육을 동원한다. 어린 세자는 이를 “체계적으로 오인(systematic misrecognition)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조[8]” 하였다. “상징적 폭력은 남성 지배를 불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구조화하려는 단일 행동자(물리적, 상징적 폭력을 무기로 지닌 남자들)와 가족, 교회, 국

가 등의 제도가 부단히 재생산하고 있는 산물이다. 이것은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동일한 의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동의를 매개로 제도화하며 또한 피비재자들이 지배자의 관점으로 구축된 이러한 범주들을 자연적인 것처럼 수용하도록 지식의 도구들을 동원한다. 그리고 일종의 자가 경시, 즉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자기 비방 그리고 평가 절하된 이미지에 대한 피지배자의 동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 방식은 물론 “가볍고 눈에 띄지 않는 폭력[9]”이다. 위계적 질서구조를 띤 왕가의 유산(전통), 왕가의 법, 제왕교육 그리고 아버지의 폭언 등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상속자 사도세자를 옥죄어 그로 하여금 기성체계(혹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갖게 한 것이다.

라캉의 “상징계(界), 상상계(界), 실재계(界)는 모든 갈등의 원천 및 인간의 조건을 정확하게 짚어내려는 노골적 욕망의 발현으로서 정신병과 신경증의 환자, 그리고 정상인의 정신과정 연구에 동원[10]”되고 있다. 외부세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형체가 없던 욕망은 위의 3계에 위치하며 유기체의 원시적 존재에게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다가 타자와 대면하면서부터 유기체의 일차원적 생존을 다차원적 삶으로 전환시켜 놓는다. 외부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의 욕망은 원시 생물처럼 기계적 생존의 무의미한 동력에 불과하다. 욕망은 타자에 자신을 비추고서 그것이 체 모습인양 상상계에서 유희하고 이어 자신의 욕망들과 부합하는 타자에 대한 탐색과정인 상징계로 진입한다. “상징계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무의식적 정신과정과 언어의 정신과정을 연결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친족구조까지 연결된다. 또한 초개인적 구조 질서로서 개인의 언어가 발화하는 순간 그 의미를 획득하며, 그것은 인간 열정의 내면성과 만족을 추구하는 열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흐름이다[11]”. 부연하자면 상징계를 구성하는 기표는 “분해 가능하거나 다른 의미와 조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질 수 없는 발산물 형태로 생겨난다”. 그리고 초개인적, “비인성적(impersonal), 독립적, 자치적” 성질과 동시에 경계가 없는 무한의 성질로서 “기의를 압박하고 개입하며 파고든다[12]”. 이러한 기표의 힘은 본

래적 ‘나’를 질서정연(조합가능)한 의미영역, 즉 인습적 규칙과 제도적(사법적) 장치를 통해 비본래적 ‘나’로 변질시켜 놓을 만큼 막강하다. 세자의 아버지의 기표(혹은 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은 본래적 ‘나’를 되찾으려는 욕망일 수 있으며, 혹은 상상계로의 회귀, 최초의 동일시(어머니)로의 회귀일 수 있다: <어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 세자는 따로 자는 법입니다>. 어머니와 정서적 결속의 불완전은 세자의 자아형성 첫 단계부터 불안요인이 되고 이어 아버지와의 소통에도 영향을 끼쳤다. 익히 아는 것처럼 라캉의 거울(specular)단계에서 자아(욕망)는 첫 대면하는 타자를 모방하고 그를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타자와의 정서적 결부, 즉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일시 과정이 심적 활력소가 되고 사회와의 연대성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상상계의 거울단계를 벗어나 상징계의 기표인 아버지가 되고 그를 소유하려는 세자의 동일시과정에 문제가 발견된다. 자기애적 동일시와 다르게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힘이 세고 권위 있는 아버지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기 위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어난다[13]”. 이것이 도덕률(선과 악)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세자의 “공격자와의 동일시[14]”(아버지를 본받고 모방하려는)는 영조가 탕평책을 발미로 신하의 눈치만 보며 병권과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노경언의 상소문의 진실마저 눈감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화를 강요하는 상징적 폭력과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기표에 대한 세자의 저항은 수포로 돌아간다. 영조는 평소 공부에 관심이 없던 세자가 신하 이의경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언급하며 시를 써 준 것이 세자의 위선이라고 오해 한다. 인원왕후의 신위 앞에서 세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대비의 죽음을 세자 탓으로 돌린다: <가증스런 자식, 내 너의 오기를 모를 줄 아니?>. 아버지의 이상과 금기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듯 세자는 영조의 모든 횡난에 <제 잘못입니다/...예, 다 제 잘못입니다>, 나라의 가뭄도 <내가 대리청정한 뒤부터 비가 안 오니,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서> 비아냥대고, 마침내 <그렇게 살기 싫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나는

내 식대로 하겠소> 하며 완강히 저항한다. 뒤쥐에 갇힌 지 일곱째 되던 날, 그 동안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던 세자는 본래적 ‘나’를 영조 앞에 당당히 드러낸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 허수아비처럼 앉혀 놓고 병신 만들었소/ 너 제대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니가 실수할 때마다 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그게 어찌 내 실수 때문이었소,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신하들에게 약점을 잡혀 진전공공한 것이지/...,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소, 하지만 당신이 강요하는 방식은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소, 공부가 그리 중한 것이오? 옷차림이 그리 중한 것이오?/...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었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아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내가 임금이 아니고 니가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위 답론을 해독하면 세자의 저항이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되지만 독해하면 그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대적 규범과 규제, 아버지의 이상과 금지를 추종하는 가운데 나타난 역설적 행태이다. 인격형성과정에서 아이는 동일시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선택하고, 만일 부재하다면 권위 있는 사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이름까지도 선택의 대상에 둔다. 사회가 갖는 전통적 가치와 이상을 내포하고 있고 이름(기표)이면 충분하다. 아버지의 기표는 아이에게 신뢰, 믿음, 미덕, 성실, 희생, 안전, 깨끗함, 등등 이상적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것들이 부재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단점, 부적합, 기만 등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배제시켜 버린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배제는 무의식으로부터 특정 개념, 생각, 이미지, 기억 또는 기표를 배척하는 것, 상징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정신병을 일으킨다[15]”. 세자의 저항이 처음에는 <예범이고 국시>인 아버지의 기표가 주는 억압에 대한 조건적 반사의 감정, 즉 무의식에 특정 개념, 생각, 이미지, 기억 또는 기표를 간직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신경증적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배제함으로써 정신병으로 나아간다. 라캉의 언어의

정신화 관점에서 보면 세자의 인성에 아버지의 기표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자의 의미화는 영조의 기표를 통해 기의가 묶여지고 흩어지는, 바뀌 말해 아버지의 기표가 세자의 세계를 존재하게 그리고 무의미화 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이 힘은 복종과 명령의 형식으로 왕조세계의 질서와 서열을 정립한다. 그러므로 세자/아들의 저항은 왕/아버지의 명령과 복종의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고 기성질서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세자(약자)의 저항은 (힘의) 결여를 보충하려는 행위이자 자기보존의 심적 동기로서 쾌감을 불러온다. 비록 상징적 폭력에 노출된 관객이 기성질서의 체계화에 동의하고 합체하며 자연스럽게 지배관계를 공고히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왕/아버지의 기표에 의해 무의미하게 허공에 흩어지는 세자/아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약자의 저항과 희생적 제의의 이야기가 좋음과 낭만적 기억으로 다가오듯이 관객은 세자의 비극적 죽음에 또한 그의 저항에 유대감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나'의 자아적 관점을 되짚는다.

IV. 광기의 자아

라캉의 상상계의 거울은 자아의 탄생과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매개체이다. 태생적으로 본래적 '나'를 볼 수 없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나'로 인지하는 자아는 그렇게 거울에 비친 타자(자신의 모습)가 되고자 하고 이어 그를 소유하려 한다. 이러한 라캉의 이론을 토대로 보면 '나'의 의식/인식, 바뀌 말해 존재의 시원은 타자에 의해 발원하고 동시에 '나'의 존재자체는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거울단계의 기만적 자아가 상징계로 진입하며 확장된 타자세계에서 많은 타자들과 소통하며 비본래적(기만적) '나'를 더욱 그럴싸하게 가꾼다. 거울의 광학적 놀이에서 벗어나 기만성의 자아가 부모와 대면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상호주체적,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기 시작한다. 상징계에서 자아는 이제껏 주체였지만 또 다른 주체의 탄생을 목도하며 그 주체와 자신은 결코 합치될 수 없고 안정

적 관계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거기에는 힘에의 결여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를 충족시키려는 강한 두 주체의 의지들이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적 관점에서 현재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욕망이 삶의 동력인 것처럼 무언가의 '부재'가 자아와 타자의 느슨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기에서 사회적 자아가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인격형성에 있어서 내부세계(자아)와 외부세계(타자)가 소통하는 가운데 무언가의 '부재'는 올바른 인격과 혹은 신경증과 정신병적 자아로 연계된다.

상상계에서 세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동일시 과정이 외부세계 타자들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강화되고 마침내 자아가 타자를 자기화하기에 이른다. 세자는 최초의 동일시 대상인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어긋나 있다. 왕가의 법도에 따라 <방 한쪽 귀퉁이에 무릎을 웅크리고 누워 엄지손가락을 빨고 잠든> 세자는 유모에 의해 길러지면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결속의 부재로 인해 불안하다: <어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 두 번째 타자인 아버지의 <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 핏덩이인 너를 세자로 책봉하고 두 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때 니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 없다>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세자는 아버지(제왕교육)를 잘 따랐고, 선왕들의 신실에 들러 아버지처럼 되고자 했고, 비록 허수아비에 불과했지만 아버지를 소유하고자 대리칭정도 수행한다. 그러나 세자의 주체와 또 다른(아버지) 주체는 결코 동일시 될 수 없고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언제든지 충돌의 가능성과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세자는 아버지처럼 되고자했지만 그를 자기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른 주체들, 체재공과 더불어 여러 세자빈객들과의 만남으로 아버지의 기표를 배제하고 파괴한다. 세자는 <앞에서는 화합을 말하면서 뒤로는 신하들 눈치나 보는 것이 탕평>이냐며 대리칭정을 거부하고, 정순황후 문안을 위해 그를 기다리던 영빈, 세손, 혜경궁, 화완옹주 앞에 다 용포 때문에 목이 잘려나간 나내관의 목을 들이대며 <그 인간한테 사랑받는 것들 다 모였네>라고 비아냥대고 <내 그 인간하고 도저히 한 궁궐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한다.

나경언의 침수 전에 음모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세자의 요청을 영조가 묵살하고 더 나아가 <너는 존재자체가 역모야! 빈궁과 옹주에게까지 칼을 들이대고, 니가 백정이나?/ 모든 것은 저의 율화 때문입니다./ 율화? 차라리 미쳐서 발광을 해라 이 자식아!>라고 몰아가자 때를 입힌 무덤방에서 관 뚜껑을 열고 나와 칼을 들고 경회궁 영조의 침소 앞까지 나아간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세자의 저항은 가부장 질서와 체계에 대한 거부와 아버지(송강호)의 살해, 원시적 자아(욕망) 혹은 파괴적 본능으로 회귀한다. 아버지는 '나'의 사회성을 결정하는 첫 단계이다. 인성구조를 언어적 구조로 해독하는 라캉의 정신분석에 따라 아버지는 '나'의 다양한 기의들을 의미화로 이끄는 강력한 주체의 상징성을 가진다. 라캉은 기표만으로 세계의 의미를 이룬 가톨릭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상징성을 차용한다. 가톨릭의 하느님이 무형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으로 세계를 운용하듯이 우리의 아버지도 실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만으로도 '나'의 의미화 구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법적이고 권위의 상징이다. 유아의 욕망에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고 그런 제한(법)을 위반할 때에는 거세라는 징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기능을 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법을 만들어 내는 동인이고, 또한 기표의 연쇄에 유동성과 연결성을 주는 힘이다. 이 기본적인 기표가 축출되어 버리면 의미화의 전 과정이 망가지게 된다[16]". 사도세자의 광기에 가까운 행동, 의대증, 화증, 망상, 무덤 생활 등은 아버지 기표의 축출에 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세자의 광기의 첫 번째 원인으로 세자가 태어 난지 백일 만에 생모와 떨어져 저승전에 거처함으로써 생겨난 고독과 불안 때문으로 기술한다.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강박증과 신경증은 심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한 이미지, 기억, 생각 등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의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세자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가혹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의 의대증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세자가 평소 자애를 입었던 중전 정성왕후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그녀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아버지 영조는 세자의 효성보다는 불량한 의대에 심한 역정

을 내며[17]" 시작되었다. 세자는 옷을 입을 것이 극히 습관적인 일이지만 옷을 입을 때 불쾌한 감정 때문에 불길한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언제나 걱정한다. 영조가 틈만 나면 세자의 의관을 아래위로 훑어보며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옷차림이 그게 뭐니? 일처리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더니 그 대님 다시 매라>, <그 옷차림은 뭐냐? 탕건은 어따 말아먹고, 옷고름은 아예 춤을 추는구나>라고 꾸짖자 뒤죽에 갇힌 지 7일째 되는 날 세자가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한다:<당신이 강요하는 방식은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소... 옷차림이 그리 중한 것이오?/ 사람이 있고 공부와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조의 지나친 간섭이 세자로 하여금 옷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였고, 세자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으며 불편해 하고 <안 맞잖아!/다른 옷 가져와!/이거 아냐, 이거 아냐!/옷! 옷 가져와!/빨리 가져와!>, 심지어 대님을 묶고 있는 내인을 발로 차버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나 내관이 <저하 더 이상 용포가 없사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목을 베어 버린다. 한중록은 "세자가 의대증을 7년 동안 앓았고 영조의 꾸짖음과 불신으로 화증도 발발[18]" 했다고 적고 있다. 결국 세자는 아버지 기표에 자신의 기의들을 묶어내지 못한다.

프로이트 관점에서 세자의 무덤놀이는 쾌락원리가 현실원리에 패한 결과이다. 영조의 불신과 꾸짖음이 아버지 기표의 축출로 그리고 부재로 연결되고 세자는 상상계로 회귀하려는 듯 자신의 무덤을 판다.: <전하께서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기에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의 욕망은 기표운동에 포획된 주체에 내속하는 공백, 사라짐, 간극, 주체의 통일적 형상을 위협하는 불안, 공포, 신경증, 요컨대 무의 존재를 증언하기 위한 기표다[19]". 아버지가 되고 그를 소유(타자화)하려는 세자의 동일시와 대상화 과정에서의 좌절이 최초 비활성화(죽음)로의 회귀를 낳은 것이다. "쾌락이 자극을 통해 유기체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현실에 좌절된) 불쾌감은 자극을 최소화하여 유기체의 무생물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 보존을 위해 긴장을 제로상태로 만드는 것이다[20]". 라캉의 죽음의 관점

은 기표가 아닌 인간 역사의 텍스트가 새겨지는 기표의 층위, 다시 말해 의미 내용이 아닌 형식적 구조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라캉의 주체는 대타적 존재이다. 타자에 의한 주체의 현존과 소멸, 다시 말해서 주체가 기표에 의해 호명되는 순간 존재하고 동시에 기표의 지배하에 놓임으로써 더 이상의 의미를 생산(활성화)하지 못한다. 세자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아버지 기표(역사성)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만 그 대가로 모순적이게도 아버지의 기표에 포획되어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의 기표는 사법적이고 권위의 상징인데, 이런 “타자의 위치에 아버지의 이름이 결여되면 대타적 존재의 기표는 구멍이 뚫리”기에 주체는 안정을 위해 부재한 아버지의 기표를 대체할 수 있는 거짓 된 혹은 은유의 고정적 기표를 만든다. 그리하여 “기표가 무수히 만들어지고 그것들로부터 상상계의 비참함이 증가[21]”하는 것이다. 세자는 “아버지 기표의 부재로 인해 환상과 망상세계로 진입한다. 이곳은 기표의 그물망 저 너머에 있고, 그물망 안에서 억제할 수 없는 동요를 일으킬 정도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함 힘이 존재하고 동시에 환상적이고 천박스럽고 또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22]”. 세자의 무덤은 형언할 수 없는, 언어적 구조를 벗어난,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잘못 놓여진, 의미화의 사슬고리에서 벗어난 몽환적 세계이다. 관 좌우로 별감이 앉아 있고, 향이 피어오르며, 소경박수가 망자해원경을 독경하자 비구니가 망자의 길을 배웅하듯 바라춤을 춘다. 망자의 영혼을 달래고 귀신에게 소원을 비는 소경의 독경소리와 비구니 바라춤의 북, 징, 팽과리 악기 소리는 마치 언어권 밖의, 통제를 벗어난, 카오스와 같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세자의 죽음을 재촉하는 듯 들린다. 망상세계에 빠져있는 동안 아버지 기표의 부재로 인해 망가진 세계를 복원하려다가 세자는 점점 더 심각한 불행한 사건을 일으킨다: 나 내관의 머리베어 버리고, 궁으로 무당을 부르고, 무덤을 파서 관에 누워있고, 마침내 관 뚜껑을 벌컥 열고 나와 칼을 들고 경회궁 편전으로 향하는 등등. 관객은 <사도>의 배경음악, 망자해원경과 옥추경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비활성화 세계로의 여행에 초대된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세계로의 여행은 지금껏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공개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기에 관객은 영화가 주는 대상적(代償的) 만족을 통해 자신만의 비밀스럽고도 두려운 날 것 그대로의 광기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

V. 결론

니체의 도덕과 “정의의 기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원한의 감정[23]”이다. 도덕의 가치가 정립될 때 쾌감과 불쾌감이 그 작동원리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행위에 대해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이며, 반대로 즐거움과 편안함을 준다면 사회의 이상적 가치로서 수용되며 그것이 사회의 도덕관이다. 많은 인간의 뇌 연구자들과 진화 심리학 및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창의적이지 않고 존재론적 위기 속에서 진화했기에 본능적 감각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24]”. 인간의 추론적 능력과 합리적 사고의 라이트모티브가 이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위의 주장들을 토대로 보면 이성적 신념과 판단에 감정의 요소가 들어 있다. 뇌 과학자들에게 이성은 감정을 토대로 추론하고 판단하기에 (편향확증의) 동기화된 합리화의 산물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짢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성(정확성)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화하는 인지부조화를 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이성의 비판적, 합리적, 공익적 추론에 의해 형성된 도덕의 가치(신념과 판단)는 거짓과 참의 차원이 아닌 옳고 그름의 감정 차원(쾌감과 불쾌감)의 문제이다. 도덕과 정의는 생존이라는 일차원적 목표에서 벗어나 공존을 위한 다차원적 협업에서 출발한다. 계급사회가 왕, 귀족, 성직자의 공익성에 기반 한 도덕을 표방한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협소한 공익성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수의 보편적 공익성을 도덕의 가치관으로 한다. 나아가 현대사회는 앞선 두 시대가 아쉽게도 성찰하지 못한 개인의 본래적 권리와 자유, 인간 존엄성을 도덕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도덕의 가치관과 효용성이 변모하면서 21세기형 도덕은 진화하고 있다.

사상가들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집단적 질서의 경향 속에서도 본래적 '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꾸준히 이어왔다. 20세기 중반기 사상가들의 탐구로 강한 사회적 질서체계 구축을 지향하던 시기의 '나'의 사회적 역할론이 '나'의 존재론적 관심으로 전환한다: 프로이트 심리학을 필두로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에크리 Ecrit』,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하이데거 『불안의 개념』, 등등. 시대적 집단이성에 의해 형성된 질서 속에서 본래적 '나'의 욕망과 사회적 가치와 이상 사이에서 어떤 이는 도덕의 철학적 가치를 어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으로까지 나아간다. 앞서 언급한 뇌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특정한 일에 느끼는 불편함과 기분 좋은 감정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사회적 행동 속에는 상징적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와 이상이 '나'의 행동 지침, 기준, 모범이 되고 있다.

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아'를 통해 사회의 이상과 질서를, 나의 '자아'를 통해 저항의 원초적 욕망을, 마지막으로 '나'의 광기를 통해 본래적 욕망, 죽음(비활성화)을 관찰하는 가운데 관객의 사회적 기표(도덕)에 관한 사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사도> 관객의 도덕적 가치관은 한편에서 전통적 사회의 상징인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에서 사도세자의 비극을 보며 '나'의 존재론적 철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중적 '자아'가 빚어낸 것이며, 또한 그 이면에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던 비밀스럽고 두려운 광기도 존재한다. 관객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질서의 붕괴로 인한 심리적 공포, 불안, 두려움이 앞서고 아들의 관점에서는 기성의 도덕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협에 의해 끊임없이 타락해 왔고 위선으로 가득하기에 이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의 위엄과 권위가 불편하지만 안정을 도모하기에 용인되고, 또한 아들의 저항도 불법적인 것으로 불안을 초래하지만 (니체의 힘에의 의지, 생존의 의지에 따른) 결어를 배우려는 원초적 욕망, 저항이기에 자연스런 행동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도> 관객의 모순적

태도는 정신의 전반적인 변증법적 과정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표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열등한 정신이 없다면 아름다운 정신(Belle âme)은 없다[25]”는 헤겔의 말처럼 이전의 열등한 정신의 양태를 공격함으로써 후세의 아름다운 정신이 태동한다. 사르트르도 정신(의식/인식)의 속성은 선택의 자유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에 열중함으로써 그 자유를 방기하는 것 같은 마조히즘적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기에 양가주망(engagement) 운동을 통해 과거의 가치를 공격해 현재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미래의 훌륭한 가치를 기대한다. 과거의 도덕은 항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사도> 관객의 현재 역시 미래에 의해 전복될지도 모르는 도덕의 가치에 안위하고 있는지 모른다. 최상의 것이기를 원하고 믿었던 도덕, 질서, 법의 체계는 인간 정신의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 중인 논제인 것이다.

참고 문헌

- [1]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지식총서 011, 2003.
- [2] C. Jones, 방문숙 외 역,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시공사, p.104, 2003.
- [3]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p.335, 2006.
- [4] 김길훈, “전래동화 빨간모자와 영화 아저씨에 나타난 아버지의 기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2권, 제7호, p.66, 2012.
- [5]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30, 2003.
- [6] Pierre Bourdieu, 김용숙 외 역, *La Domination Masculine 남성지배*, 동문선, p.50, 2000.
- [7] Pierre Bourdieu, 김용숙 외 역, *La Domination Masculine 남성지배*, 동문선, pp.50-61, 2000.
- [8] Bourdieu Pierre and J.C.Passeron,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oety and Culture*, London, Sage, 1977.

- [9] Pierre Bourdieu, 김용숙 외 역, *La Domination Masculine* 남성지배, 동문선, p.53, 2000.
- [10]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139, 2003.
- [11]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p.92-93, 2003.
- [12]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p.101-102, 2003.
- [13] Calvin S. Hall, 지경자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홍신문화사, p.103, 1997.
- [14] Calvin S. Hall, 지경자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홍신문화사, p.104, 1997.
- [15]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161, 2003.
- [16]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162, 2003.
- [17] 전규태, *한중록*, 범우사, pp.84-85, 1988.
- [18]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구조,” *겨레어문학*, 제16권, p.240, 1991.
- [19] 김성호, “죽음과 죽음욕동의 담론들,” *비평과 이론*, Vol.17, p.53, 2012.
- [20] 김성호, “죽음과 죽음욕동의 담론들,” *비평과 이론*, Vol.17, pp.44-45, 2012.
- [21]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163, 2003.
- [22]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p.164-165, 2003.
- [23] Friedrich Nietzsche,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니체 전집 14권, 책세상, p.416, 2003.
- [24] C. Moony, 이지연 역, *The Republican Brain* 똑똑한 바보, 동녘사이언스, pp.50-55, 2012.
- [25] Malcolm Bowie, 이종인 역, *자크 라캉*, 시공사, p.148, 2003.

저자 소개

김길훈(Guyul-Hun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
- 1993년 2월 :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DEA
- 1998년 2월 :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박사)

▪ 현재 : 전북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 문화, 영상분야